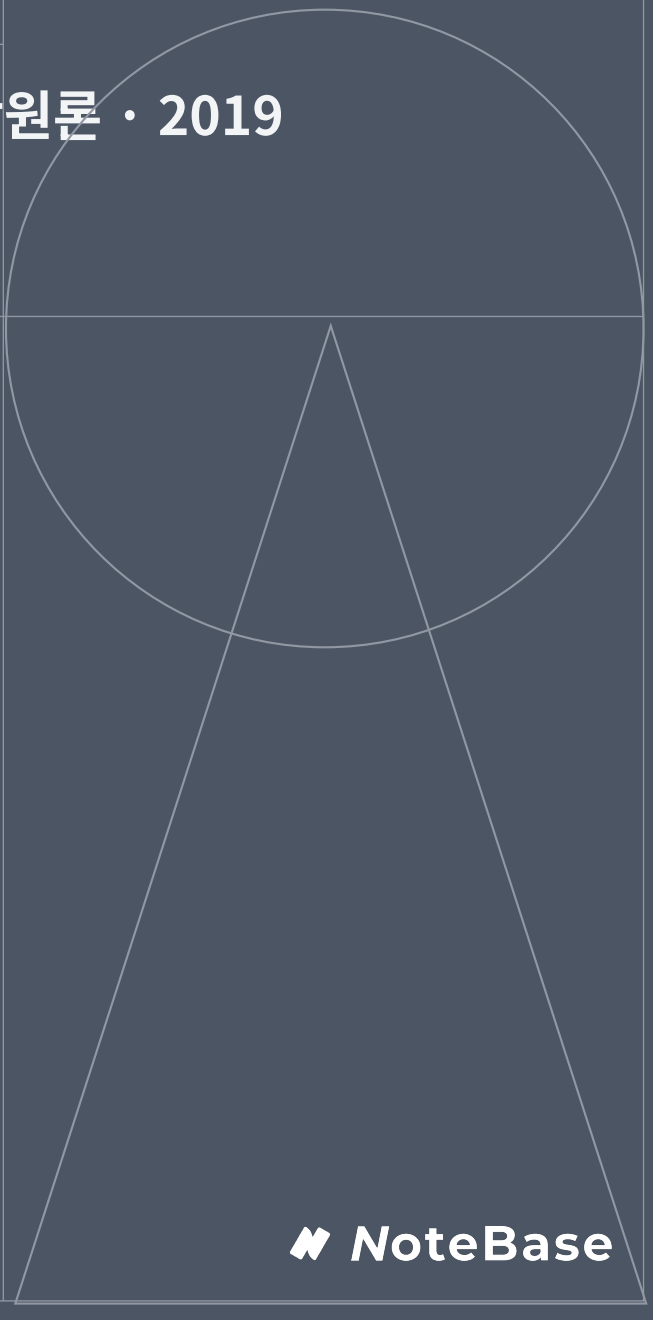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7급 · 경제학원론 · 2019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7급 · 경제학원론 · 2019

공무원/지방직/7급 · 경제학원론 · 2019

문 1. 어떤 상품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직선이며, 상품 1단위당 5,000원의 세금이 부과되었다고 하자. 세금의 부과는 상품에 대한 균형거래량을 200개에서 100개로 감소시켰으며, 소비자잉여를 450,000원 감소시키고, 생산자잉여는 300,000원 감소시켰다. 세금부과에 따른 자중손실은?

① 250,000원

② 500,000원

③ 750,000원

④ 1,000,000원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단위세 부과 뒤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감소분 중 세수로 이전된 부분을 제외하여 자중손실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세금은 상품 1단위당 5,000원이다. 균형거래량은 200개에서 100개로 100개 감소한다. 소비자잉여는 450,000원, 생산자잉여는 300,000원 감소한다.

사용할 공식

자중손실은 소비자잉여 감소액과 생산자잉여 감소액의 합에서 정부의 세수를 뺀 값이다.자중손실=소비자잉여 감소+생산자잉여 감소-세수
세수는 거래된 100개에 단위세 5,000원을 곱한 값이다. 세수는 소비자·생산자에게서 정부로 이전된 금액이므로 사회 전체의 순손실이 아니다.

계산 과정

1. 세금 부과 뒤 거래량은 100개이므로 세수는 100개 × 5,000원 = 500,000원이다.
2.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감소 합계는 450,000원 + 300,000원 = 750,000원이다.
3. 이 중 정부로 이전된 세수 500,000원을 제외하면 자중손실은 750,000원 - 500,000원 = 250,000원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O: 계산 결과 자중손실은 250,000원이므로 옳다.
② X: 500,000원은 자중손실이 아니라 세수이다. 틀린 표현 '500,000원' → 올바르게는 '250,000원'이다.
③ X: 750,000원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감소액을 단순 합산한 값으로, 세수 이전분을 빼지 않은 금액이다. 틀린 표현 '750,000원' → 올바르게는 '250,000원'이다.
④ X: 1,000,000원은 주어진 잉여 감소와 세수로부터 도출되지 않는 값이다. 틀린 표현 '1,000,000원' → 올바르게는 '250,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감소액 750,000원을 그대로 자중손실로 보는 것이 함정이다. 이 가운데 500,000원은 정부 세수로 이전되었을 뿐 사라진 후생이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세금 문제에서는 먼저 세후 거래량으로 세수를 계산한 뒤, 소비자잉여 감소와 생산자잉여 감소의 합에서 세수를 뺀다.

암기 포인트

세금으로 줄어든 잉여 = 세수 이전분 + 자중손실이다.

NoteBase

문 2.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조세를 인상하고, 중앙은행은 기존의 통화량을 변함없이 유지한다면, 통상적인 기울기를 보이는 IS-LM 모형에서 발생하는 효과는?

① 소득은 증가하고 이자율은 감소한다.

② 소득은 감소하고 이자율은 증가한다.

③ 소득과 이자율 모두 감소한다.

④ 소득과 이자율 모두 증가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세 인상이라는 긴축재정정책과 통화량 불변일 때 IS-LM 모형의 균형소득과 이자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IS곡선은 재화시장의 균형 조합이며, 조세가 오르면 가처분소득과 소비가 줄어 IS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LM곡선은 화폐시장의 균형 조합이며, 통화량이 변하지 않으면 이동하지 않는다. 통상적인 우하향 IS곡선과 우상향 LM곡선에서 IS곡선의 좌측 이동은 균형소득과 이자율을 모두 낮춘다.

선지별 해설

① X. 조세 인상은 소비와 총수요를 줄여 소득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소득은 증가'이며, 올바르게는 '소득은 감소하고 이자율도 감소한다'이다.
② X. 조세 인상에 따른 IS곡선의 좌측 이동은 소득을 감소시키지만, 소득 감소로 화폐거래수요도 줄어 이자율은 증가하지 않고 감소한다. 틀린 표현은 '이자율은 증가'이며, 올바르게는 '이자율은 감소한다'이다.
③ O. 조세 인상으로 IS곡선이 좌측 이동하고 LM곡선은 그대로이므로 새 균형에서 소득과 이자율이 모두 감소한다.
④ X. 조세 인상은 확장재정이 아니라 긴축재정이므로 소득과 이자율을 모두 증가시키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모두 증가'이며, 올바르게는 '소득과 이자율 모두 감소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조세 인상으로 정부의 세입이 늘어난다는 점을 소득 증가로 연결하는 함정이 있다. IS-LM 모형에서는 조세 인상이 가처분소득과 소비를 줄여 IS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정변수부터 IS곡선의 이동 방향으로 바꿔 판단한다. 조세 인상은 IS 좌측 이동, 조세 인하는 IS 우측 이동이다. 통화량이 고정되면 LM곡선은 그대로이므로, IS의 이동 방향에 따라 소득과 이자율의 변화를 함께 확인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조세↑ → 소비↓ → IS 좌측 → 소득↓·이자율↓이다.

NoteBase

문 3. 중앙은행이 공개시장 매입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이자율은 (A)하고 투자지출이 (B)하여 총수요 곡선이 (C)으로 이동한다. (A) ~ (C)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짝 지은 것은?

① (A): 하락, (B): 감소, (C): 오른쪽

② (A): 상승, (B): 증가, (C): 왼쪽

③ (A): 하락, (B): 증가, (C): 오른쪽

④ (A): 상승, (B): 감소, (C): 왼쪽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중앙은행의 공개시장 매입이 통화량, 이자율, 투자지출, 총수요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공개시장 매입은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여 시중에 통화를 공급하는 정책이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화폐시장에서 이자율은 하락하고, 낮아진 이자율은 이자율에 민감한 투자지출을 증가시킨다. 투자지출 증가는 총수요를 증가시키므로 총수요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이자율 하락과 총수요곡선의 오른쪽 이동은 맞다. 그러나 투자지출이 '감소'한다는 표현이 틀리다. 이자율 하락은 자금조달비용을 낮추므로 투자지출은 증가한다.

② X: 투자지출 증가는 맞다. 그러나 이자율 '상승'과 총수요곡선의 '왼쪽' 이동이 틀리다. 공개시장 매입으로 통화량이 늘면 이자율은 하락하고 총수요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③ O: 공개시장 매입 → 통화량 증가 → 이자율 하락 → 투자지출 증가 → 총수요곡선 오른쪽 이동의 흐름과 일치한다.

④ X: 이자율 '상승', 투자지출 '감소', 총수요곡선 '왼쪽'이 모두 틀리다. 올바르게는 이자율 하락, 투자지출 증가, 총수요곡선 오른쪽 이동이다.

오답 포인트

공개시장 매입과 공개시장 매각의 방향을 바꾸어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매입은 시중에 돈을 푸는 정책이므로 이자율 하락과 총수요 증가로 이어진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개시장 조작 문제에서는 먼저 매입·매각이 통화량을 어느 방향으로 바꾸는지 판단한다. 그다음 통화량 증가이면 이자율 하락, 투자 증가, 총수요곡선 오른쪽 이동으로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채권 매입은 돈의 공급 증가, 이자율 하락, 투자·총수요 증가이다.

NoteBase

문 4.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확실하게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은 노동자보다 기업에 더 큰 비용을 초래한다.

②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예상되는 경우, 예상 인플레이션율은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 간 차이와 같게 된다.

③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이 어려우면 장기계약 체결이 어려워진다.

④ 예상되지 않은 인플레이션은 고정 연금 수령자에게 불리하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예상된 인플레이션과 예상되지 않은 인플레이션이 계약, 이자율, 소득분배에 미치는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예상된 인플레이션은 경제주체가 물가상승을 계약·임금·명목이자율에 반영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다. 예상되지 않은 인플레이션은 이러한 조정 전에 실질소득과 계약상 지급액의 가치를 바꾸어 소득분배와 장기계약에 문제를 일으킨다. 명목이자율은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해 상승하고,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이자율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확실하게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은 노동자보다 기업에 더 큰 비용을 초래한다'는 일반화가 틀렸다. 예상된 인플레이션은 임금·가격·명목이자율 조정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노동자보다 기업에 반드시 더 큰 비용을 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틀린 표현 '노동자보다 기업에 더 큰 비용' → 올바르게는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부담을 기업과 노동자 사이에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이다.

② O.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명목이자율에 반영되므로,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에서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뺀 값과 같아진다.

③ O. 인플레이션을 예측하기 어려우면 장래의 실질가치를 정하기 어려워져 임금·대금 등을 정하는 장기계약 체결이 어려워진다.

④ O. 예상되지 않은 인플레이션은 고정된 명목 연금을 받는 사람의 연금 구매력을 낮추므로 고정 연금 수령자에게 불리하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기업의 가격조정비용만 떠올리면 맞는 말처럼 보인다. 그러나 예상된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기업의 비용이 노동자의 비용보다 항상 크다고 결론낼 수는 없다. 핵심 피해는 ③·④처럼 예상하지 못한 물가상승이 실질가치와 계약을 흔든다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인플레이션이 예상된 것인지 예상되지 않은 것인지를 구분한다. 예상된 경우에는 명목임금·명목이자율·계약조건의 조정 가능성을, 예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소득의 재분배와 장기계약의 어려움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암기 포인트

예상된 물가상승은 명목변수에 반영되고, 예상 밖 물가상승은 실질소득과 장기계약을 흔든다.

NoteBase

문 5. 작년에 쌀 4가마니와 옷 2벌을 소비한 영희는 올해는 쌀 3가마니와 옷 6벌을 소비하였다. 작년에 쌀 1가마니의 가격은 10만 원, 옷 1벌의 가격은 5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쌀 가격이 15만 원, 옷 가격이 10만 원으로 각각 상승하였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 산정방식을 적용할 때, 작년을 기준으로 한 올해의 물가지수는?

① 120

② 160

③ 175

④ 21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기준연도 소비량으로 구성한 고정 바구니의 비용을 비교하여 소비자물가지수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기준연도는 작년이며, 기준연도 소비량은 쌀 4가마니와 옷 2벌이다. 작년 바구니 비용은 4×10만 원 + 2×5만 원으로 50만 원이다. 올해 가격으로 같은 기준연도 바구니를 사는 비용은 4×15만 원 + 2×10만 원으로 80만 원이다. 올해 실제 소비량인 쌀 3가마니와 옷 6벌은 소비자물가지수 계산에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할 공식

소비자물가지수는 올해 가격으로 평가한 기준연도 바구니 비용기준연도 가격으로 평가한 기준연도 바구니 비용×100이다. 기준연도를 100으로 놓고 같은 소비 바구니의 가격만 비교하는 산정방식이기 때문에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작년 가격과 작년 소비량으로 기준연도 바구니 비용을 구한다: 4×10만 원 + 2×5만 원 = 50만 원이다.
2. 올해 가격과 작년 소비량으로 올해의 기준연도 바구니 비용을 구한다: 4×15만 원 + 2×10만 원 = 80만 원이다.
3. 물가지수는 (80만 원)/(50만 원)×100=160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계산 결과는 160이므로 120은 틀리다. 틀린 표현 '120' → 올바르게는 '160'이다. 120은 쌀 가격 상승률 50%와 옷 가격 상승률 100%를 기준연도 지출비중으로 가중하지 않고 잘못 평균하거나 일부만 반영할 때 나올 수 있다.
② O. 기준연도 바구니의 비용이 5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증가하므로 물가지수는 160이다.
③ X. 계산 결과는 160이므로 175는 틀리다. 틀린 표현 '175' → 올바르게는 '160'이다. 175는 올해 실제 소비량을 섞거나 품목별 가격변화율을 단순 평균하여 계산한 값으로, 기준연도 수량을 고정한다는 조건에 맞지 않는다.
④ X. 계산 결과는 160이므로 210은 틀리다. 틀린 표현 '210' → 올바르게는 '160'이다. 210은 올해 소비량을 사용한 지출액을 기준연도 바구니 비용과 비교하는 등 분자와 분모의 소비량 기준을 다르게 둘 때 발생하는 오류이다.

오답 포인트

올해 실제 소비량인 쌀 3가마니와 옷 6벌에 끌려가면 안 된다. 이 산정방식은 기준연도인 작년의 소비량, 즉 쌀 4가마니와 옷 2벌을 두 해의 가격에 모두 적용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소비자물가지수 계산에서는 먼저 기준연도를 정하고 그해의 수량을 고정한다. 이어서 고정한 바구니를 기준연도 가격과 비교연도 가격으로 각각 평가한 뒤, 비교연도 비용을 기준연도 비용으로 나누어 100을 곱한다.

암기 포인트

CPI는 '기준연도 수량 고정, 가격만 비교'이다.

NoteBase

문 6. 다음은 영국과 스페인의 치즈와 빵 생산에 관련된 자료와 그에 대한 주장이다.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1개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		40시간 일할 때 생산량	
	치즈	빵	치즈	빵
영국	1시간	2시간	40개	20개
스페인	2시간	8시간	20개	5개

ㄱ. 영국에서 생산하는 치즈 1개의 기회비용은 빵 2개이다.
ㄴ. 영국에서 생산하는 치즈 1개의 기회비용은 빵 1/2개이다.
ㄷ. 스페인에서 생산하는 치즈 1개의 기회비용은 빵 1/4개이다.
ㄹ. 영국에서 생산하는 빵 1개의 기회비용은 치즈 2개이다.
ㅁ. 영국에서 생산하는 빵 1개의 기회비용은 치즈 1/2개이다.
ㅂ. 영국은 빵 생산에 절대우위가 있고, 치즈 생산에는 비교우위가 있다.
ㅅ. 영국은 빵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고, 스페인은 치즈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① ㄱ, ㄷ, ㄹ
② ㄱ, ㅁ, ㅂ
③ ㄴ, ㄷ, ㅅ
④ ㄴ, ㅂ, ㅅ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각 재화 1개를 생산하는 데 드는 시간을 이용하여 기회비용과 비교우위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영국은 치즈 1개에 1시간, 빵 1개에 2시간이 든다. 스페인은 치즈 1개에 2시간, 빵 1개에 8시간이 든다.
기회비용은 한 재화를 1개 더 생산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다른 재화의 생산량이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치즈 1개의 빵 기준 기회비용은 치즈 1개 생산시간 ÷ 빵 1개 생산시간이다. 빵 1개의 치즈 기준 기회비용은 빵 1개 생산시간 ÷ 치즈 1개 생산시간이다.
같은 재화의 기회비용이 더 낮은 나라가 그 재화에 비교우위를 가진다. 생산시간 자체가 더 적은지는 절대우위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계산 과정

1. 영국에서 치즈 1개의 기회비용은 1÷2 = 1/2개의 빵이고, 빵 1개의 기회비용은 2÷1 = 2개의 치즈이다.
2. 스페인에서 치즈 1개의 기회비용은 2÷8 = 1/4개의 빵이고, 빵 1개의 기회비용은 8÷2 = 4개의 치즈이다.
3. 치즈의 기회비용은 스페인이 더 낮으므로 스페인은 치즈에, 빵의 기회비용은 영국이 더 낮으므로 영국은 빵에 비교우위가 있다. 영국은 두 재화 모두 생산시간이 더 적으므로 두 재화 모두 절대우위가 있다.
따라서 ㄴ, ㄷ, ㅅ이 옳다.

선지 판단

① X. ㄱ은 영국의 치즈 1개 기회비용을 빵 2개라고 하여 틀리고, ㅅ도 빠져 있다. 실제로는 영국의 치즈 1개 기회비용은 빵 1/2개이며, 옳은 묶음은 ㄴ, ㄷ, ㅅ이다.
② X. ㄱ은 영국 치즈의 기회비용을 빵 2개라고 하여 틀리고, ㅁ도 빵 1개의 기회비용을 치즈 1/2개라고 하여 틀리다. 실제로는 각각 빵 1/2개와 치즈 2개이다. 옳은 묶음은 ㄴ, ㄷ, ㅅ이다.
③ O. ㄴ은 영국 치즈 1개의 기회비용이 빵 1/2개라는 계산과 맞고, ㄷ은 스페인 치즈 1개의 기회비용이 빵 1/4개라는 계산과 맞는다. ㅅ도 영국은 빵, 스페인은 치즈에 비교우위가 있다는 판단과 맞는다.
④ X. ㄴ은 맞지만 ㅂ은 영국이 치즈에 비교우위를 가진다고 하여 틀리고, ㅅ도 빠져 있다. 실제로 영국은 두 재화에 절대우위가 있으나 비교우위는 빵에 있고, 스페인은 치즈에 비교우위가 있다. 옳은 묶음은 ㄴ, ㄷ, ㅅ이다.

오답 포인트

ㄱ과 ㅁ은 생산시간을 그대로 기회비용으로 보거나 나눗셈의 분자·분모를 뒤바꾼 데서 나온다. ㅂ은 절대우위와 비교우위를 혼동한 진술이다. 영국은 두 재화의 생산시간이 모두 짧아 절대우위는 모두 가지지만, 비교우위는 상대적 기회비용이 더 낮은 빵에만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나라에서 한 재화 1개를 만들 때 포기하는 다른 재화의 양을 계산한다. 그 뒤 재화별로 두 나라의 기회비용을 비교하여 더 작은 나라를 비교우위국으로 정한다. 절대우위는 생산시간의 절대적 크기, 비교우위는 기회비용의 상대적 크기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절대우위는 더 적은 생산시간, 비교우위는 더 낮은 기회비용이다.

NoteBase

문 7.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화의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의 총수입은 증가한다.

② 재화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일 때, 재화의 가격이 변하더라도 그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의 총수입에는 변화가 없다.

③ 재화의 수요가 탄력적일 때,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 재화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총지출은 증가한다.

④ 수요곡선이 우하향의 직선인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임의의 모든 점에서 동일하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가격 변동이 총수입과 소비자의 총지출에 미치는 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를 나타낸다. 비탄력적 수요는 수요량의 변동률이 가격 변동률보다 작고, 탄력적 수요는 더 크며, 단위탄력적 수요는 두 변동률의 크기가 같다.
비탄력적 수요에서는 가격과 총수입이 같은 방향으로, 탄력적 수요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단위탄력적 수요에서는 가격이 변해도 총수입은 변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가격 상승률보다 수요량 감소율이 작다. 따라서 가격 상승 시 총수입은 증가한다.
② O.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이면 가격 변동률과 수요량 변동률의 크기가 같으므로 가격이 변해도 총수입은 변하지 않는다.
③ O. 수요가 탄력적이면 가격 하락률보다 수요량 증가율이 크다. 따라서 가격 하락 시 소비자의 총지출, 즉 기업의 총수입은 증가한다.
④ X. 틀린 표현은 '임의의 모든 점에서 동일하다'이다. 우하향 직선 수요곡선은 기울기는 일정하지만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위쪽은 탄력적, 중점은 단위탄력적, 아래쪽은 비탄력적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직선의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사실을 가격탄력성이 일정하다는 사실과 혼동하게 만든다. 가격탄력성은 가격과 수요량의 비율을 함께 반영하므로 직선 수요곡선에서도 점마다 달라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가격 변화와 총수입의 방향을 먼저 비교한다. 비탄력적이면 가격과 총수입은 같은 방향, 탄력적이면 반대 방향, 단위탄력적이면 총수입은 불변이다. 직선 수요곡선은 중점을 기준으로 위쪽이 탄력적이고 아래쪽이 비탄력적이라고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비탄력: 가격↑ 총수입↑, 탄력: 가격↑ 총수입↓, 직선 수요곡선의 중점: 단위탄력이다.

NoteBase

문 8. 실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업보험제도가 강화될수록 자연실업률은 낮아진다.

② 생산가능연령인구는 5,000명, 비경제활동인구는 2,000명, 취업자는 2,880명이라면 실업률은 4%이다.

③ 구조적 실업의 주원인은 임금 경직성이며, 임금 경직성은 최저임금제, 노동조합, 효율적 임금 때문에 발생한다.

④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 실업률은 낮아진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실업률의 계산과 구직 포기자, 자연실업률 및 구조적 실업의 관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이며, 구직을 포기한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다. 자연실업률은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비율이다. 구조적 실업은 임금 경직성 등으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아 생기는 실업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자연실업률은 낮아진다'이다. 실업보험이 강화되면 실직 상태에서 구직을 서두를 유인이 줄어 실업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마찰적 실업이 늘어 자연실업률은 높아지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② O - 경제활동인구는 5,000명에서 비경제활동인구 2,000명을 뺀 3,000명이다. 실업자는 경제활동인구 3,000명에서 취업자 2,880명을 뺀 120명이므로, 실업률은 120/3,000으로 4%이다.
③ O - 임금 경직성은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균형 수준으로 충분히 조정되지 않는 상태이다. 최저임금제, 노동조합, 효율임금은 임금의 하방 경직성을 낳아 구조적 실업의 원인이 될 수 있다.
④ O - 구직을 포기한 사람은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따라서 실업자 수와 경제활동인구가 함께 줄어들어, 실업률은 낮아진다.

오답 포인트

①은 실업보험의 소득보장 기능만 보고 자연실업률에 미치는 유인 효과를 놓치기 쉽다. ④는 구직 포기자를 실업자로 계속 세면 안 된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실업률 문제에서는 먼저 실업자가 실제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제활동인구인지 확인한다. 제도가 구직기간을 길게 하거나 임금의 경직성을 키우면 자연실업률을 높이는 방향인지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이며, 구직 포기자는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이다.

NoteBase

문 9. 다음은 유동성 함정에 처한 경우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A) ~ (C)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짝 지은 것은?

한 국가가 유동성 함정에 처한 경우,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정책은 기대인플레이션의 (A)을 가져와서 실질이자율의 (B)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면 IS-LM 모형의 (C)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총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

① (A): 상승, (B): 하락, (C): IS

② (A): 상승, (B): 하락, (C): LM

③ (A): 하락, (B): 상승, (C): IS

④ (A): 하락, (B): 상승, (C): LM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유동성 함정에서 지속적인 통화량 증가가 기대인플레이션, 실질이자율, IS-LM 모형의 곡선 이동에 미치는 효과를 묻는다.

핵심 개념

유동성 함정은 명목이자율이 매우 낮아 통화량을 늘려도 이자율을 더 낮추기 어려운 상태이다. 기대인플레이션은 앞으로의 물가상승 예상이며,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을 뺀 값이다.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실질이자율이 하락하여 소비·투자가 늘고, 이는 재화시장의 지출 증가이므로 IS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지속적인 통화량 증가는 기대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고, 명목이자율이 더 내려가기 어려운 유동성 함정에서도 실질이자율을 하락시킨다. 실질이자율 하락으로 소비·투자가 늘어나므로 IS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② X. (C)가 LM이라는 표현이 틀렸다.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실질이자율 하락은 재화시장 지출을 늘리는 효과이므로, 올바르게는 IS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③ X. (A)가 하락, (B)가 상승이라는 표현이 틀렸다. 지속적인 통화량 증가는 기대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고 실질이자율을 하락시킨다. 또한 올바른 곡선은 IS곡선이다.

④ X. (A)가 하락, (B)가 상승, (C)가 LM이라는 표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실질이자율이 하락하며, IS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오답 포인트

통화량 증가라는 말만 보고 LM곡선의 오른쪽 이동을 고르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의 핵심 전달경로는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 실질이자율 하락 → 소비·투자 증가이므로, 최종적으로 이동하는 곡선은 IS곡선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유동성 함정에서는 명목이자율을 통한 통화정책 효과가 약하다. 지속적 통화확대가 기대인플레이션을 높이는지 확인한 뒤,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이면 실질이자율 하락, 재화수요 증가, IS곡선 우측 이동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 실질이자율 하락 → 지출 증가 → IS 우측 이동이다.

NoteBase

문 10. 현재 완전경쟁시장에서 사적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어떤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의 가격은 350이며, 사적 한계비용은 $MC = 50 + 10Q$이다. 한편 이 재화의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사회가 입는 피해는 생산량 1단위당 100이라고 한다. 앞으로 이 기업이 사회적 최적생산량을 생산하기로 한다면 생산량의 변동은? (단, Q는 생산량이다)

① 10단위 감소시킨다.

② 10단위 증가시킨다.

③ 20단위 감소시킨다.

④ 20단위 증가시킨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단위당 외부비용이 발생할 때 사적 이윤극대화 생산량과 사회적 최적생산량을 각각 구해 생산량 변동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재화 가격은 350이고, 사적 한계비용은 $MC = 50 + 10Q$이다. 생산 1단위당 외부비용은 100이므로 사회적 한계비용은 사적 한계비용보다 항상 100만큼 크다.

사용할 공식

사적 이윤극대화에서는 $P = MC$이고, 사회적 최적에서는 $P = SMC$이다. 외부비용이 있으면 $SMC = MC + MEC$이며, 여기서 $MEC = 100$이다. 완전경쟁시장의 가격 350은 추가 1단위 생산에서 얻는 한계편익으로 사용된다.

계산 과정

1. 현재의 사적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350 = 50 + 10Q$이므로 $Q = 30$이다.
2. 사회적 한계비용은 $SMC = (50 + 10Q) + 100 = 150 + 10Q$이다.
3. 사회적 최적생산량은 $350 = 150 + 10Q$이므로 $Q = 20$이다.
4. 따라서 생산량은 30에서 20으로 변하므로 10단위 감소한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O. 현재 생산량은 30단위, 사회적 최적생산량은 20단위이므로 10단위 감소한다.
② X. '10단위 증가시킨다'가 틀린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10단위 감소시킨다.
③ X. '20단위 감소시킨다'가 틀린 표현이다. 외부비용 100을 한계비용에 더한 뒤 계산하면 감소량은 20이 아니라 10단위이다.
④ X. '20단위 증가시킨다'가 틀린 표현이다. 외부비용이 있으면 사회적 한계비용이 커져 사회적 최적생산량은 사적 생산량보다 작아진다.

오답 포인트

외부비용 100을 생산량에서 바로 빼는 것이 함정이다. 100은 생산량이 아니라 단위당 한계외부비용이므로 먼저 MC에 더해 사회적 한계비용을 만든 다음 가격과 같게 놓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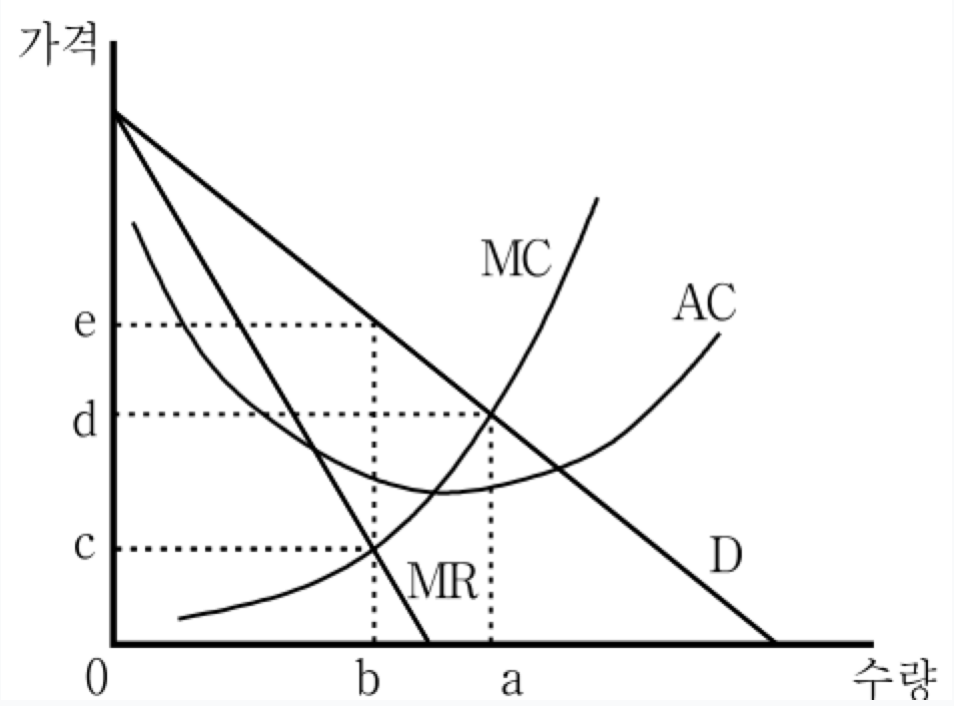
외부비용 문제에서는 먼저 사적 생산량을 $P = MC$로 구하고, 다음으로 $P = MC + MEC$로 사회적 최적생산량을 구한 뒤 두 생산량의 차이를 비교한다.

암기 포인트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으면 $SMC > MC$이므로 사회적 최적생산량은 시장의 사적 생산량보다 작다.

NoteBase

문 11. 그림은 독점기업의 단기균형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MR은 한계수입곡선, D는 수요곡선, MC는 한계비용곡선, AC는 평균비용곡선이다)



① 단기균형에서 이 기업의 생산량은 a이다.

② 단기균형에서 이 기업의 이윤은 b × (e - c)이다.

③ d는 균형가격을 나타낸다.

④ 균형생산량 수준에서 평균비용이 한계비용보다 크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독점기업의 단기 이윤극대화 조건 $MR = MC$와, 그 생산량에서 수요곡선으로 가격을 읽는 방법을 묻는다.

자료 읽는 순서

1. 한계수입곡선 MR과 한계비용곡선 MC가 만나는 생산량을 찾으면 b이다.
2. 생산량 b에서 수요곡선 D까지 수직으로 올라가면 독점가격은 e이다.
3. 생산량 b에서 MC는 c이고, 평균비용 AC는 c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

NoteBase

핵심 근거

독점기업은 $MR = MC$인 b만큼 생산한다. 이때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수요곡선 D에서 결정되므로 e이다. 이윤은 가격과 평균비용의 차이에 생산량을 곱한 값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생산량 a에서는 D와 MC가 만난다. 독점기업의 단기균형 생산량은 MR과 MC가 만나는 b이다. 틀린 표현 'a' → 올바르게는 'b'이다.

② X. b에서 가격은 e이지만 c는 한계비용이다. 이윤은 가격에서 평균비용을 뺀 뒤 생산량을 곱하므로 $b \times (e - AC(b))$이다. 틀린 표현 'b×(e-c)' → 올바르게는 'b×(e-AC(b))'이다.

③ X. 독점균형 생산량 b에서 수요곡선 D가 가리키는 가격은 e이다. d는 생산량 a에서 D와 MC가 만나는 가격 수준이다. 틀린 표현 'd' → 올바르게는 'e'이다.

④ O. 균형생산량 b에서 MC는 c이고 AC는 그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 따라서 평균비용이 한계비용보다 크다.

오답 포인트

MR=MC는 생산량을 정하는 조건이고, 가격은 그 생산량에서 수요곡선 D로 읽는다. ②처럼 한계비용 MC를 평균비용 AC와 바꾸어 이윤을 계산하는 것이 대표적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독점 그래프에서는 먼저 MR=MC로 생산량을 정하고, 그 수량을 수요곡선에 대입해 가격을 읽는다. 이윤을 묻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윤=(가격-평균비용)× 생산량을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독점: MR=MC에서 수량 결정, D에서 가격 결정, $P - AC$로 단위당 이윤 판단이다.

NoteBase

문 12. 투자자들이 위험에 대하여 중립적인 경우, 현재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고, 1년 만기 채권의 이자율이 미국에서는 1%, 우리나라에서는 2%일 때, 국가 간 자금이 이동하지 않을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① 우리나라의 이자율이 1년 후 1%로 하락한다.

② 투자자가 1년 후 환율이 1달러당 1,01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③ 미국의 이자율이 1년 후 2%로 상승한다.

④ 투자자가 1년 후에도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위험중립 투자자 아래에서 양국의 기대수익률이 같아지는 무차익 이자율평가를 적용해 1년 뒤 예상 환율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현재 환율은 1달러당 1,000원이고, 1년 만기 이자율은 우리나라 2%, 미국 1%이다. 환율은 원/달러, 즉 1달러당 원화로 표시한다. 국가 간 자금이 이동하지 않으려면 원화 투자와 달러 투자의 기대수익률이 같아야 한다.

사용할 공식

무차익 조건은 $E(S_1) = S_0 \frac{1 + i_{KR}}{1 + i_{US}}$이다. 처음 1달러를 원화로 바꾸어 우리나라에 투자한 뒤 1년 후 다시 달러로 바꾼 수익이, 처음부터 미국에 투자한 수익과 같아야 하므로 이 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현재 1달러는 1,000원이다.
2. 우리나라에 투자하면 1년 후 1,020원이 되고, 미국에 투자하면 1.01달러가 된다.
3. 따라서 $E(S_1) = 1{,}000 \times \frac{1.02}{1.01} \approx 1{,}009.9$이다. 즉 1년 후 예상 환율은 약 1달러당 1,010원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우리나라 이자율이 1년 후 1%로 하락한다는 것은 주어진 조건도 아니고, 자금이동이 없기 위한 직접 조건도 아니다. 틀린 표현은 '우리나라의 이자율이 1년 후 1%로 하락한다'이며, 올바르게는 '현재 이자율 격차를 상쇄하도록 1년 후 원/달러 환율이 약 1,010원으로 예상된다'이다.
② O. 계산한 예상 환율은 약 1,009.9원이므로 반올림하면 1달러당 1,010원이다. 이 환율 예상이 우리나라와 미국 채권의 기대수익률을 같게 한다.
③ X. 미국 이자율이 1년 후 2%로 상승한다는 것도 주어진 조건이나 무차익 조건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미국의 이자율이 1년 후 2%로 상승한다'이며, 올바르게는 '미국 이자율은 현재 1%로 두고, 환율 예상이 이자율 차이를 조정한다'이다.
④ X. 1년 후에도 환율이 1,000원이라면 우리나라 투자수익은 1,020원, 미국 투자수익은 1.01달러가 되어 기대수익률이 같지 않다. 틀린 표현은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이며, 올바르게는 '원화의 이자율이 더 높으므로 원화는 약 1% 절하되어 환율이 약 1,010원으로 예상된다'이다.

오답 포인트

우리나라 이자율이 더 높다는 사실을 미래 이자율의 하락이나 미국 이자율의 상승으로 연결하는 것이 함정이다. 이 문제에서는 미래 이자율 변화가 아니라 예상 환율의 상승, 즉 원화 절하가 이자율 차이를 상쇄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환율 표기가 원/달러인지 달러/원인지 확인한 뒤, 두 나라 이자율을 $E(S_1)=S_0(1+i_{국내})/(1+i_{해외})$에 대입한다. 국내 이자율이 더 높고 환율이 원/달러라면 예상 미래 환율은 상승한다.

암기 포인트

원/달러 환율에서 국내 금리 상승 → 예상 원화 절하 → 미래 환율 상승이다.

NoteBase

문 13. 경제주체들의 환율 예상이 정태적으로 형성되는 경우,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한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에서 중앙은행이 긴축적 통화정책을 실시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단, 국가 간 자본이동이 완전하고,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

① 실질소득은 감소하고 자국화폐는 평가절상된다.

② 자국화폐는 평가절하되고 실질소득은 증가한다.

③ 실질소득은 변화가 없고 자국화폐는 평가절상된다.

④ 환율은 변화가 없고 실질소득은 감소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자본이 완전 이동하는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변동환율제와 정태적 환율 예상 아래 긴축적 통화정책이 환율과 실질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다.

핵심 개념

긴축적 통화정책은 통화공급을 줄여 국내 이자율을 올린다. 완전한 자본이동 아래에서는 자본유입이 발생하고, 변동환율제에서는 자국화폐가 평가절상된다. 평가절상은 순수출을 줄이므로 실질소득은 감소한다.
변동환율제는 환율이 외환시장 수급에 따라 조정되는 제도이고, 고정환율제와 달리 환율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이 유입되어 자국화폐가 평가절상된다. 그 결과 순수출이 감소하여 실질소득도 감소한다.
② X: '실질소득은 증가한다'가 틀린 표현이다. 자국화폐 평가절상으로 순수출이 감소하므로 실질소득은 감소한다.
③ X: '실질소득은 변화가 없고'가 틀린 표현이다. 긴축적 통화정책과 평가절상은 순수출을 줄여 실질소득을 감소시킨다.
④ X: '환율은 변화가 없고'가 틀린 표현이다. 변동환율제에서는 자본유입에 따라 환율이 조정되어 자국화폐가 평가절상된다. 실질소득 감소 부분만 맞다.

오답 포인트

②와 ③은 이자율 상승만 보고 경기 확장을 떠올리는 함정이다. 이 문항에서는 자본유입에 따른 자국화폐 평가절상이 순수출을 감소시킨다는 경로까지 함께 보아야 한다. ④는 '변동환율제'인데도 환율 불변이라고 한 점이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소규모 개방경제의 변동환율제에서 긴축통화정책이 나오면 이자율 상승 → 자본유입 → 자국화폐 평가절상 → 순수출 감소 → 실질소득 감소의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긴축통화 → 자본유입 → 자국화폐 절상 → 순수출·소득 감소이다.

NoteBase

문 14. 헥셔-올린(Heckscher-Ohlin) 모형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본이 노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국가는 자본집약적인 상품을 수출한다.

② 생산요소들은 국내에서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지만 국가 간 이동은 불가능하다고 가정한다.

③ 생산요소의 국가 간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상품의 국제무역이 발생해도 생산요소의 가격은 불변이다.

④ 교역 대상 상품들의 국가 간 생산기술의 차이는 없다고 가정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헥셔-올린 모형의 요소부존도에 따른 무역, 생산요소의 이동 가정, 요소가격균등화 정리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헥셔-올린 모형은 국가마다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산요소가 다르므로, 각 국가는 자국에 풍부한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수출한다고 설명한다. 생산요소는 국내에서는 이동할 수 있지만 국가 간에는 이동하지 못한다고 가정한다. 다만 재화무역은 생산요소 가격을 균등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자본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국가는 자본집약재를 비교우위재로 생산하여 수출한다.

② O. 헥셔-올린 모형에서는 노동·자본 등의 생산요소가 한 국가 안에서는 자유롭게 이동하지만 국가 사이에서는 이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③ X. 틀린 표현은 '생산요소의 가격은 불변이다'이다. 실제로는 생산요소가 국가 간 직접 이동하지 않아도 재화무역을 통해 각국의 요소가격이 균등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요소가격균등화 정리가 성립한다.

④ O. 헥셔-올린 모형은 교역국 사이에 생산기술의 차이가 없고, 요소부존도의 차이가 무역 발생 원인이라고 가정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생산요소의 국가 간 이동 불가'와 '요소가격의 불변'을 혼동하게 한다. 요소 자체는 국경을 넘지 않지만, 요소를 많이 사용한 재화의 교역이 간접적으로 요소가격에 영향을 준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헥셔-올린 모형에서는 먼저 풍부한 요소와 집약재를 연결한다. 이어서 요소는 국내 이동 가능·국제 이동 불가, 생산기술은 동일, 재화무역은 요소가격 균등화 방향이라는 가정을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풍부한 요소 → 그 요소 집약재 수출, 요소는 국경을 못 넘어도 재화무역은 요소가격을 가깝게 만든다.

NoteBase

문 15. 종량세(specific tax) 부과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인 재화의 공급자에게 종량세를 부과할 경우 조세 부담은 모두 소비자에게 귀착된다.

② 종량세가 부과된 상품의 대체재가 많을수록 공급자에게 귀착되는 조세부담은 작아진다.

③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큰 재화일수록 종량세 부과의 자중손실이 크다.

④ 종량세 부과가 균형거래량을 변동시키지 않는다면 종량세 부과는 자중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종량세의 조세귀착과 자중손실이 수요·공급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조세귀착은 법적으로 누가 세금을 납부하는가가 아니라 수요자와 공급자 중 누가 가격 변화를 통해 실제 부담을 지는가의 문제이다. 상대방보다 가격탄력성이 작은 쪽이 더 큰 조세부담을 진다. 대체재가 많으면 수요자는 다른 재화로 쉽게 이동할 수 있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커진다. 자중손실은 조세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 생기는 총잉여의 순손실이며,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커진다.

선지별 해설

① O. 공급이 완전탄력적이면 공급자는 세후 수취가격이 조금만 낮아져도 공급하지 않으므로 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종량세는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어 조세부담이 모두 소비자에게 귀착된다.

② X. 틀린 표현은 '공급자에게 귀착되는 조세부담은 작아진다'이다. 대체재가 많을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커져 소비자는 가격 상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실제로는 소비자에게 귀착되는 부담은 작아지고, 공급자에게 귀착되는 조세부담은 커진다.

③ O. 수요와 공급이 모두 탄력적일수록 세금으로 인한 거래량 감소 폭이 커진다. 거래가 더 많이 위축되므로 종량세 부과의 자중손실도 커진다.

④ O. 자중손실은 조세로 균형거래량이 감소할 때 발생한다. 종량세 부과가 균형거래량을 변동시키지 않는다면 거래 감소가 없으므로 자중손실도 발생하지 않는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대체재가 많다'는 사실을 공급자의 부담 감소로 연결한 함정이다. 대체재가 많으면 수요가 더 탄력적이므로 소비자가 가격 인상을 피하기 쉬워지고, 조세부담은 오히려 공급자 쪽으로 더 이전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세귀착 문제에서는 먼저 수요와 공급 중 어느 쪽의 가격탄력성이 더 작은지를 비교한다. 더 비탄력적인 쪽이 더 큰 부담을 진다. 자중손실 문제에서는 조세로 거래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보며,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자중손실이 커진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조세부담은 비탄력적인 쪽이 많이 진다. 대체재가 많으면 수요는 탄력적이고, 자중손실은 거래량 감소에서 생긴다.

NoteBase

문 16. 인플레이션 조세(inflation tax)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가 세금부과나 차입 등 통상적인 방법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없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② 화폐발행권자는 통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주조차익(seigniorage)을 얻는다.

③ 인플레이션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자는 화폐를 보유한 모든 경제주체이다.

④ 인플레이션 조세는 형평성 차원에서 경제전반에 나타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완화에 기여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인플레이션 조세와 주조차익의 재원 조달 기능, 그리고 그 부담의 귀착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인플레이션 조세는 정부가 통화량을 늘려 물가를 상승시킬 때 기존 화폐의 실질구매력이 줄어드는 데서 발생하는 부담이다. 결정 차이축은 화폐 발행으로 정부가 얻는 수입인가, 화폐 보유자가 잃는 구매력인가에 있다.
주조차익은 화폐 발행자가 통화를 새로 공급하여 얻는 수입이다. 인플레이션 조세의 실질적 부담자는 기존에 화폐를 보유한 경제주체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정부가 조세 부과나 차입만으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어려울 때 통화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조세가 발생할 수 있다.
② O. 화폐발행권자가 통화량을 증가시켜 얻는 발행 수입을 주조차익이라고 한다.
③ O. 물가가 오르면 이미 보유한 화폐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므로, 인플레이션 조세의 실질적 부담은 화폐 보유자에게 돌아간다.
④ X. 틀린 표현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완화'이다. 인플레이션 조세는 현금·예금 등 화폐성 자산의 실질가치를 낮추며, 저소득층처럼 자산 중 화폐 보유 비중이 큰 계층에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올바르게는 소득·재산 분배의 불평등을 완화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②의 주조차익을 화폐 보유자의 부담과 같은 개념으로 혼동하기 쉽다. 주조차익은 발행자가 얻는 수입이고, 인플레이션 조세는 물가 상승으로 화폐 보유자가 부담하는 실질구매력의 감소이다. 또한 ④처럼 인플레이션이 항상 분배를 개선한다는 표현은 성립하지 않는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통화량 증가가 제시되면 먼저 '정부·화폐발행권자의 수입'이면 주조차익, '기존 화폐 보유자의 구매력 감소'이면 인플레이션 조세로 판단한다. 분배 효과를 묻는 선지는 화폐성 자산의 실질가치 하락이 누구에게 상대적으로 큰 부담인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주조차익은 발행자의 수입, 인플레이션 조세는 화폐 보유자의 구매력 감소이다.

NoteBase

문 17. X, Y 두 종류의 재화가 있다. X재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7이고, Y재 가격이 1% 상승할 때 Y재 수요량은 1.4% 감소한다고 한다. 램지 원칙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Y재 세율이 10%일 때, X재의 최적 세율은?

① 0.5%

② 5%

③ 7%

④ 2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램지 원칙에서 각 재화의 최적 세율은 수요의 가격탄력성 절댓값의 역수에 비례한다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X재 수요의 가격탄력성 절댓값은 0.7이다. Y재는 가격이 1% 상승할 때 수요량이 1.4% 감소하므로 가격탄력성 절댓값은 1.4이다. Y재 세율은 10%이다.

사용할 공식

램지 원칙에서는 t_i가 $1/|\varepsilon_i|$에 비례한다. 따라서 두 재화에 대해 $t_X/t_Y = |\varepsilon_Y|/|\varepsilon_X|$가 성립한다. 가격탄력성이 작은 재화일수록 수요 감소가 작으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

계산 과정

Y재의 가격탄력성 절댓값은 $1.4/1 = 1.4$이다.

$\frac{t_X}{10\%} = \frac{1.4}{0.7} = 2$

따라서 $t_X = 2 \times 10\% = 20\%$이다.

선지 판단

① X — 0.5%는 계산 결과 20%와 다르다. 틀린 표현인 '0.5%' 대신 '20%'가 되어야 한다.

② X — 5%는 X재와 Y재의 탄력성 비율을 반대로 적용한 값도 아니다. 틀린 표현인 '5%' 대신 '20%'가 되어야 한다.

③ X — 7%는 X재의 가격탄력성 0.7을 세율로 잘못 읽은 값이다. 틀린 표현인 '7%' 대신 '20%'가 되어야 한다.

④ O — X재의 탄력성 0.7은 Y재의 1.4의 절반이므로, 역수에 비례하는 X재의 최적 세율은 Y재 세율 10%의 두 배인 20%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탄력성이 작은 재화에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는 방향을 반대로 적용하기 쉽다. 이 문제에서는 X재의 탄력성 0.7이 Y재의 1.4보다 작으므로 X재 세율이 10%보다 커져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재화의 수요 가격탄력성 절댓값을 구한 뒤 세율 비율을 탄력성의 역수 비율로 둔다. 즉 $t_X/t_Y = |\varepsilon_Y|/|\varepsilon_X|$로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램지 과세: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세율은 높아진다.

NoteBase

문 18. 한 국가의 총생산함수는 $Y = AL^{\frac{2}{3}}K^{\frac{1}{3}}$이고, 1인당 자본량의 변동은 $\Delta k = (1-b)y - \delta k$라고 할 때, 생산물 시장의 균형조건이 $Y = C + I$이며, 소비함수는 $C = bY$, $0 < b < 1$인 솔로우 성장모형에서 황금률 수준의 소비율 b는? (단, Y는 총생산량, L은 인구(노동량), K는 자본량, A는 기술수준, y는 1인당 생산량, k는 1인당 자본량, C는 소비, I는 투자, b는 소비율, δ는 감가상각률을 의미한다)

① $\frac{1}{9}$
② $\frac{1}{3}$
③ $\frac{4}{9}$
④ $\frac{2}{3}$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솔로우 성장모형의 황금률 자본량에서 한계생산과 감가상각의 관계를 이용하여 소비율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생산함수 $Y = AL^{2/3}K^{1/3}$를 인구 L로 나누면 1인당 생산함수는 $y = Ak^{1/3}$이다.
소비함수 $C = bY$이므로 투자율·저축률은 $1-b$이고, 1인당 투자는 $i = (1-b)y$이다.
황금률 수준에서는 1인당 소비를 최대로 하므로 자본의 한계생산이 감가상각률과 같아진다.

사용할 공식

황금률 조건은 $f'(k) = \delta$이다.
$f(k) = Ak^{1/3}$이므로 $f'(k) = \frac{1}{3}Ak^{-2/3}$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황금률에서 자본을 한 단위 더 늘려 얻는 산출 증가분이 그 자본의 감가상각분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황금률 조건 $\frac{1}{3}Ak^{-2/3} = \delta$에 k를 곱하면 $\delta k = \frac{1}{3}Ak^{1/3} = \frac{1}{3}y$이다.
2. 자본량이 일정한 상태에서는 $\Delta k = 0$이므로 $(1-b)y = \delta k$이다.
3. 따라서 $(1-b)y = \frac{1}{3}y$이므로 $1-b = \frac{1}{3}$, $b = \frac{2}{3}$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b=\frac{1}{9}$이면 저축률은 $1-b=\frac{8}{9}$가 되어 황금률 저축률 $\frac{1}{3}$과 맞지 않는다. 틀린 값 $\frac{1}{9}$ → 올바르게는 $b=\frac{2}{3}$이다.
② X. $b=\frac{1}{3}$이면 저축률은 $\frac{2}{3}$이다. 이는 필요한 황금률 저축률 $\frac{1}{3}$보다 크다. 틀린 값 $\frac{1}{3}$ → 올바르게는 $b=\frac{2}{3}$이다.
③ X. $b=\frac{4}{9}$이면 저축률은 $\frac{5}{9}$이다. 황금률 조건에서 도출한 저축률 $\frac{1}{3}$과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값 $\frac{4}{9}$ → 올바르게는 $b=\frac{2}{3}$이다.
④ O. $b=\frac{2}{3}$이면 저축률은 $1-b=\frac{1}{3}$이다. 이는 $\delta k=\frac{1}{3}y$를 충족하는 황금률 저축률이다.

오답 포인트

$\frac{1}{3}$은 소비율이 아니라 황금률에서의 저축률이다. 소비율은 저축률의 보완관계이므로 $b=1-\frac{1}{3}=\frac{2}{3}$으로 바꾸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코브-더글러스 생산함수 $y=Ak^{\alpha}$의 황금률에서는 $\delta k=\alpha y$가 성립한다. 정상상태식 $(1-b)y=\delta k$와 비교하여 먼저 저축률 $1-b=\alpha$를 구한 뒤 소비율 $b=1-\alpha$를 구한다.

암기 포인트

$y=Ak^{\alpha}$의 황금률 저축률은 α, 소비율은 $1-\alpha$이다.

NoteBase

문 19. 내생적 성장 이론의 다양한 시사점이 아닌 것은?

①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양(+)의 외부효과와 음(-)의 외부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킬 수 있다.

② 연구개발의 결과인 기술진보는 지식의 축적이므로 지대추구 행위를 하는 경제주체들에 의하여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③ 교육에 의하여 축적된 인적자본은 비경합성과 배제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④ 노동력 중 연구개발부문의 종사자는 기술진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생산량 증가에 기여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내생적 성장론에서 연구개발·지식과 인적자본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및 각 자본의 성질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내생적 성장론은 연구개발, 지식의 축적, 인적자본의 축적이 기술진보를 낳아 장기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지식은 여러 사람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비경합성을 가지며 완전한 배제가 어려운 외부효과를 낳지만, 교육을 통해 개인에게 체화된 인적자본은 그 개인의 노동서비스와 결합하므로 경합성과 배제가능성을 가진다.

선지별 해설

① O. 민간기업의 연구개발은 지식의 파급을 통해 다른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양(+)의 외부효과를 낳을 수 있다. 동시에 특허 경쟁이나 기존 기업의 이윤을 잠식하는 효과와 같은 음(-)의 외부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② O. 연구개발의 산물인 기술지식은 축적될 수 있으므로, 지식 축적을 추구하는 경제주체의 활동이 지속되면 기술진보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③ X. 틀린 표현은 '교육에 의하여 축적된 인적자본은 비경합성과 배제가능성을 가지고 있다'이다.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성질은 주로 지식에 해당한다. 교육으로 개인에게 체화된 인적자본은 특정 개인의 숙련·능력이므로 경합성과 배제가능성을 가진다.

④ O. 연구개발부문 종사자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내고, 그 기술은 다른 생산부문의 생산성을 높인다. 따라서 연구개발 노동은 기술진보를 통해 간접적으로 생산량 증가에 기여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지식의 성질인 비경합성을 인적자본에 옮겨 놓은 선지이다. 인적자본도 성장의 원천이지만, 개인에게 체화된 숙련 자체를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해도 소모되지 않는가’를 기준으로 비경합성을 판단한다. 아이디어·기술지식은 비경합적이지만, 개인의 교육·숙련으로 형성된 인적자본은 그 개인에게 귀속되는 생산요소이다.

암기 포인트

지식은 비경합적 파급효과, 인적자본은 개인에게 체화된 숙련이다.

NoteBase

문 20. A국가의 경제주체들은 화폐를 현금과 예금으로 절반씩 보유한다. 또한 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은 10%이다. A국의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를 440만 원 증가시켰을 때 A국의 통화량 변동은?

① 800만 원 증가

② 880만 원 증가

③ 1,100만 원 증가

④ 4,400만 원 증가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현금-예금 비율과 지급준비율이 함께 주어진 경우의 통화승수로 본원통화 증가가 통화량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경제주체가 현금과 예금을 절반씩 보유하므로 현금-예금 비율은 $c = C/D = 1$이다.
지급준비율은 $r = 0.1$이고, 본원통화 증가액은 440만 원이다.

사용할 공식

통화승수는 $m = \frac{1+c}{c+r}$이다.
현금도 보유하므로 단순 예금승수 $1/r$가 아니라 현금-예금 비율을 반영한 통화승수를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현금과 예금의 보유액이 같으므로 $c = 1$이다.
2. 통화승수는 $m = \frac{1+1}{1+0.1} = \frac{20}{11}$이다.
3. 통화량 변화는 $\Delta M = m\Delta H = \frac{20}{11} \times 440 = 800$이므로 800만 원 증가한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O: 계산 결과 통화량은 800만 원 증가한다.
② X: '880만 원 증가'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800만 원 증가'이다. 현금-예금 비율과 지급준비율을 함께 반영한 통화승수는 20/11이다.
③ X: '1,100만 원 증가'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800만 원 증가'이다. 1,100만 원은 '절반씩 보유'를 $C = 0.5D$로 잘못 해석하여 $c = 0.5$를 대입할 때 나오는 값이다. 절반씩 보유는 현금액과 예금액이 같다는 뜻이므로 $c = 1$이다.
④ X: '4,400만 원 증가'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800만 원 증가'이다. 4,400만 원은 현금 보유를 무시하고 단순 예금승수 $1/r = 10$만 적용한 값이다.
계산 결과 800만 원 증가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오답 포인트

'현금과 예금을 절반씩 보유'는 현금이 예금의 절반이라는 뜻이 아니라 현금액과 예금액이 같다는 뜻이다. 따라서 $c = 0.5$가 아니라 $c = 1$로 둔다. 또한 현금 보유가 있으면 $1/r$만으로 통화승수를 구할 수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현금과 예금이 함께 제시되면 먼저 $c = C/D$를 정한 뒤, $m = (1 + c)/(c + r)$을 계산하고 본원통화 변화액에 곱해 통화량 변화를 구한다.

암기 포인트

현금도 보유하면 통화승수는 $1/r$가 아니라 $m = (1 + c)/(c + r)$이다.

NoteBase